

네트워크 도시에서 상상적 지리와 비판적 지리교육

이 희 상*

Imaginative Geographies and Critical Geography Education in Networked Cities

Heesang Lee*

요약 :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학습자들의 일상적 생활세계에 토대를 둔 '사적 지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지리교육 내용과 과정의 새로운 틀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생활세계 자체가 점차적으로 미디어 네트워크와 시각적 이미지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사적 지리는 이념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순수할 수 없으며, 상업주의적 시각적 이미지들로 재현된 그리고 학습자들의 실존적 삶에서부터 탈맥락화된 '상상적 지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정지해 버리고, 단지 소비를 통해만 자아를 실현하는 Marcuse의 '일차원적 인간'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현실상황에서 본 논문은 오늘날 기술주의와 소비주의의 이데올로기 망에 위치하는 일상적 생활세계의 '사적 지리'를 '상상적 지리'가 아니라 '비판적 지리'를 통해서 바라 볼 수 있는 중심적 위치에 학교 지리교육이 위치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주요어 : 네트워크 도시, 시각적 이미지, 재현의 정치, 일차원적 인간/사회, 사적 지리, 상상적 지리, 비판적 지리

Abstract : Recently, many researchers have strongly suggested the new framework of (regional) geography education with reference to the learners' 'private geographies' grounded on their everyday life worlds. However, in the situation that the life world itself is increasingly filled with media networks and visual images, the learners' private geographies cannot be ideologically neutral or innocent and are more and more influenced by 'imaginative geographies', represented as visual images combined with commercialism and decontextualized from the learners' existential lives. As a result, the learners are rendered 'one-dimensional men' in Marcuse's terms, who are unable to think critically of themselves and their society, only being interested in self-realization through consumption. In this question and context, this paper argues that geography education in schools needs to be located where the learners can see their 'private geographies', which are on the ideological web of technology and consumption, not through 'imaginative geographies' but through 'critical geographies'.

Key words : networked cities, visual images, politics of representation, one-dimensional man/society, private geography, imaginative geography, critical geography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ang@hanmail.net

“회전대는 땅바닥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스펙터클의 소비, 소비의 스펙터클, 소비의 스펙터클의 소비, 기호의 소비, 소비의 기호, 완결을 지향하는 각각의 하위체계는 이처럼 자기 파괴적인 선회를 제공한다. 일상성의 차원에서”(Lefebvre, 2000, 213).¹⁾

“상상력은 물상화의 과정에 면역되어 있지는 않았다.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에 지배받고, 자신의 이미지에 고통받는다. 정신 분석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다. …… 왜곡된 개개인(상상력의 능력에서도 또한 왜곡된)은 현재 허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조직하고 파괴할 것이다. 그러한 것을 허용하면 그야말로 가공스럽게 될 것이다 - 문화의 파국은 아니라 해도 그것의 가장 억압된 경향이 자유롭게 도량할 것이다”(Marcuse, 1964, 288).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 간 많은 연구자들이 학습자들의 일상적 생활세계에 토대를 둔, 즉 그들의 ‘사적 지리(private geography)’를 중심으로 한 (지역)지리교육의 필요성, 정당성 그리고 방법론을 제기해 왔다(권정화, 1997; 박승규 · 김일기, 2001; 장의선 외, 2002; 조성옥, 2002; 류재명; 2002; 김정아 · 남상준, 2005; 남호엽, 2005). 이 주장은 기존의 학문적 지리, 즉 ‘공적 지리(public geography)’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재 지리교육 내용과 과정을 비판하고, 학습자들이 그들의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직접 경험하는 지리, 즉 사적 지리에 기반한 지리교육 내용과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사적 지리와 공적 지리는 분리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지리를 통해 공적 지리를 이해하고, 공적 지리를 통해 사적 지리를 파악하는 순환적 관계에 있으며, 특히 사적 지리는 공적 지리를 이해하기 위한 시공간적 맥락이나 상황이며, 학습자의 삶과 그 터전을 이해하는 장 그 자체로 제시되고 있다.

사적 지리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국지적 범위에 국한되는 ‘장소(place)’로서 일상적 생활세계 혹은 경험세계에 기반한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갖게 되는 지리적 경험의 특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주거하는 물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지리

적 경험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즉, 관광, 스포츠, 영화, 게임, 소비 등과 같은 대중 문화를 통해서, 특히 신문, 잡지, 서적과 같은 인쇄 미디어나 (지상파, 케이블, 위성) TV, 인터넷과 같은 전자 미디어를 통해서 지리적 정보를 얻고 간접적인 지리적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세계를 지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Morgan, 2001). 예를 들어, 국지적인 범위에 기반하는 지역신문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이영민, 1999, 2003), 사람들은 문학작품과 같은 인쇄 미디어가 재현하는 가상 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를 보게 되며(이은숙, 1992; 심승희, 2001), 특히 TV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심상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송언근 · 김재일, 2002; 이정화, 2005). 이처럼, 미디어는 일종의 ‘대중 지리학(popular geography)’을 만들어 낸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그들이 관심을 갖는 공간은 그들의 육체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물리적, 심리적 혹은 실존적 생활공간이라기보다는,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공간’, ‘소비공간’ 및 ‘놀이공간’이다. 즉, 그들은 일상적 생활세계의 ‘장소’보다는 ‘장소상실’의 공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학생들에게 전자는 지루한 일상적 공간이며 어디론가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인 반면, 후자는 그와 같은 일상적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지리 수업시간에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그들의 주변지역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지 않다.²⁾ 반면 영국의 산업혁명과 산업도시 설명에서 맨체스터를 언급하면 학생들의 관심과 반응은 생각 이상이며, 케이블 TV에서 시청한 영국축구팀 이야기나 컴퓨터 공간에서 실천한 축구게임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처럼 오늘날 학생들의 사적 세계는 스크린 앞의 물리적인 세계보다는 차라리 스크린 속의 재현적인 세계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관심과 의미를 많이 두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으로 멀다고 해서 관심과 의미를 적게 두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오랜 옛날처럼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가 아니라,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사적 지리의 공간은 점증적으로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경험(mediated experience)', 혹은 Relph(1976)가 '대리적 내부성(vicarious insideness)'이라 부른 것을 통한 경험들로 채워지고 엮여지고 있다. 사람들의 지리적 경험, 지식 그리고 상상은 더 이상 직접적인 여행이나 학교에서의 '문자화된(printed)' 텍스트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광고사진, 영화, TV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시각화된(visualized)' 이미지를 접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지리적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일상적 생활세계와 사적 지리가 중립적이거나 순수하지는 않다는 것이다(Giroux, 1999). 그것은 미디어와 이미지들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정치적, 문화적 및 지리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사회와 도시가 점차적으로 '상업주의'나 '소비주의'에 바탕을 둔 미디어 네트워크와 그것에 의해 전달된 이미지들로 채워지면서, 그 결과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세계, 즉 사적 지리는 미디어와 이미지에 의해 '재현된(represented)', '가공된(invented)' 혹은 '상상된(imagined)' 지리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나타나는 서양(특히 미국)에 대한 이미지나 (한국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되고, 그 결과 일종의 '상상적 지리(imaginative geography)'가 어떻게 생산되고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물론 이것은 학교 지리교육이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뜻이 아니며, 반대로 학교 밖 지리적 경험이 항상 이데올로기적 담론과 이미지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학습자들의 '지리적 상상(geographical imagination)'의 상당한 부분이 현재 학교 밖의 다양한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학습자들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지리적 경험, 지식 그리고 상상에 대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의 범위와 강도는 학교 지리교육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적 및 문화적 환경에서 우리는 학교 지리교육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학교 지리교육이 학교 밖 지리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주변의 지리적 환경을 합리적으로 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의 학교 지리교육에서는 학교 밖에서 다양한 미디어와 이미지를 통해 재현적으로 전달된 지리적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즉 대안적인 '지리적 상상력'이 강조되어야 함을 본 글은 주장한다. 본 글의 목적은 지리교육의 대상 및 매개체로서 '공적 지리'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사적 지리'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맥락 속에서 지리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번째 절에서는 현대 도시의 공간과 경관의 일반적 특징을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세 번째 절에서는 네트워크 도시 공간에서 출현하는 경관으로서 시각적 및 지리적 이미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 '상상적 지리'가 생산되는 방식을 포스트모더니즘 및 기호학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네 번째 절에서는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미디어와 이미지를 통해 생산된 상상적 지리를 Marcuse의 '일차원적 인간/사회'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일차원적 인간/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적 지리'를 채우고 있는 '상상적 지리'를 대신하여 '비판적 지리'가 들어서는 함을 강조하고, 이 점을 학교 지리교육에 대한 함의로 제시하면서 본 글을 끝맺는다.

II. 네트워크 공간으로서 도시와 그 경관

일상적 생활세계로서 도시라는 장은 사람들의 지리적 경험과 생활 그리고 그들의 지리적 지식과 상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것은 도시지역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촌락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시 공간에서 물리적, 전자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다. 최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대 도시의 기능과 형태는 과거 산업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그것들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및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도시의 공간은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것은 사람들의 지리적 경험과 생활의 장으로서

도시가 작동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리적 지식과 상상이 구성되는 방식의 변화까지도 의미한다. 오늘날 현대 사회와 도시는 ‘네트워크(network)’와 ‘이동성(mobility)’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현대 도시 “공간은 자동차의 강제에 의해서 개념이 정해진다. 운행이 거주 개념을 대체했는데, 그것도 소위 기술적 합리성 속에서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그들의 거주 공간의 한 부분이자, 실로 그 자신의 본질의 한 단편이기까지 하다”(Lefebvre, 2000, 195). 더 나아가, “공항과 같은 도시는 자동차를 위한 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자동차는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이지만 비행기는 완전히 비선택적이다. ... 공항과 같은 도시는 유일하게 이동할 때만 성립되는 그런 곳이라서 도시의 형태, 땅과의 관계도, 이웃 주민들과의 사회적 관계도 없는 그런 도시이다”(정인하, 2006, 268). Augé(1995)는 네트워크와 이동성의 증가 결과, 진정하고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부재하는 공항과 같은 공간을 ‘비장소(non-place)’라고 불렀다. 이처럼 현대 도시는 가시적인 혹은 비가시적인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도시 공간에서는 다양한 경관들이 생산되고 변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경관들은 도시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미지, 정보, 느낌 등을 제공한다.

여기서 잠시,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현대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 지역, 장소, 공간 등을 ‘규모적 테리토리(scalar territory)’라는 이차원적 면의 맥락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관계적 네트워크(relational network)’라는 일차원적 선의 맥락에서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 최근 지리학의 쟁점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의 최근 관점은 주로 조절(regulation) 및 통치(governance)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지리학에서 애매하지만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인 ‘규모(scale)’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담론을 이끌어 왔다.³⁾ 관련 연구자들은 국가라는 단일의 공간 단위에서 다중적 공간 단위들로의 축적체제와 조절/통치 메커니즘의 공간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방화(glocalization)’, ‘규모의 정치학(politics of

scale)’ 및 ‘규모적 조정(scalar fix)’ 등과 같은 개념을 동원해 왔다(Swyngedow 1992; Smith, 1992; Jonas, 1994; Brenner, 2000; Jessop, 2000; MacLeod and Goodwin, 1999). 이들이 생각하는 “지리적 규모는 매우 유동적인 사회적 관계와 차이의 영토화의 결과이며,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지리적 경관에서 임시적으로 고정되어 있다”(Smith, 2001, 154). 즉, 공간과 장소를 지리적 규모를 통해서 볼 때, 지리적 규모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앞에 주어진 자연적이고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의 맥락에서 생산되고 변화한다는 ‘규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scale)’(Marston, 2000, 2004), 그리고 다양한 지리적 규모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변화한다는 ‘관계로서 규모(scale as relation)’(Howitt, 1998, 2002)⁴⁾ 등과 같은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관점은, ‘관계로서 규모’를 바라보는 관점과 비록 일정한 부분에서는 중첩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심지 도시체계’에 기반한 공간이론과는 달리, 도시 내/간 공간관계는 더 이상 거리, 경계, 영역, 포섭, 접근성 등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즉, 동일한 물리적 도시 공간 내에 존재하더라도, 어떤 곳은 초고속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곳은 그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채로 존재한다. 또한 이 관점은 도시 내/간 네트워크의 구성 방식에 따라 상이한 시공간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즉, 도시를 이미 주어진 시공간 내에서 다양한 물리적 대상들이 위치하는 ‘절대적’ 시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구성 방식에 따라 다양한 시공간이 다중적으로, 역동적으로 생산되고 변화하는 ‘관계적’ 시공간으로 바라본다(Amin and Graham, 1999; Graham and Marvin, 2001; Amin and Thrift, 2002). 시공간에 대한 관계적 접근은 Leibniz의 ‘단자론’에 철학적 바탕을 두며, Lefebvre(1991)의 ‘공간의 (사회적) 생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Harvey, 1996 참고). 최근 과학 기술이나 정보기술의 공간성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은, 시공간을 사회-기술 혹은 인간-비인간(동물/기계) 간의 네트워크 관계로 파악하고 ‘영역성’이나 ‘정체성’의 의미를 소개하는, Bruno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이나 Donna Haraway의 '사이보그(cyborg)' 개념을 동원하면서, 도시를 다중적, 파편적, 그리고 역동적인 시공간의 맥락에서 이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이동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대 도시/지역의 영역성의 의미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음을 오히려 그 역할이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예를 들어 지역주의의 발달과 지역갈등의 심화, 지역 정체성 회복 운동의 활성화, 지방 정부 역할의 증대, 세계적 네트워크의 결절로서 장소의 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aasi, 2004 참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물리적 및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현대 도시의 영역, 경계 그리고 정체성은 흐트러지고 있음을 우리의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도시 영역이라 할지라도 기능적으로는 더 이상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도시공간이 형성되고, 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도시 경관들이 출현하고 있다.

Appadurai(1990)는 문화의 세계적 흐름의 결과로 등장하는 그리고 공간적으로 상호 불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경관들을 제시한다: (1) 인종경관(ethnoscapes), (2) 매체경관(mediascapes), (3) 기술경관(technoscapes), (4) 금융경관(finascapes), (5) 이념경관(ideoscapes). Appadurai가 강조하는 것은 이 경관들이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고, 불규칙하다는 것이며, 어떠한 정형화된 모형(예를 들어, 중심-주변 모형)으로는 그 형태나 성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관들은 다양한 지리적 규모의 행위자들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리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각 개인들의 감각을 통해 지각된다. 따라서 이 경관들은 지구상에 걸쳐 있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그들의 상황적인 상상력을 통해 구성한 다중적 세계들이며, 이런 의미에서 Anderson의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의 용어를 차용하면서, Appadurai는 그것을 '상상된 세계(imagined worlds)'라고 불렀다. 이러한 문화의 세계적 흐름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의 도시들에서 차별적인 경관들로 나타난다. 즉 어느 도시는 매체경관이 발달하는가 하면, 다른 도시는 금융경관이 발달한다. 또한 동일한 경관이라도 어느 도시에서는 눈에 확 들어

올 정도의 아주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다른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미미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다섯 가지의 경관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간접적으로 매개된 지리적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을 세계적 네트워크의 공간에 연결시키는 '매체경관' 일 것이다. 하지만, Appadurai가 파악하지 못한 경관이 있다면, 그것은 의류상품이나 음식상품(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피자헛, 배스킨라빈스 등) 등과 관련된 '상품경관(commoscapes)' 혹은 '소비경관(consumscapes)' 일 것이다. 이 경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우리의 육체와 직접 관련된다는 것이고, 문화적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매우 자주, 많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Ritzer(1996)가 현대 사회의 특징을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라고 부른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상품경관 혹은 소비경관에 주목한 것이다. Barber(1996)가 일컬은, 맥도날드, 매킨토시, MTV, MS 등으로 구성된 테크노피아의 '맥월드(McWorld)'를 형성하면서, 맥도날드는 세계적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망을 통해 세계 각국 도시들 곳곳에 황금아치 M을 그려 놓고 있다.

III. 부재의 현존으로서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

1. 시각적 이미지 보기

일차원적인 관계적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된 현대 도시 공간의 특징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공간이 '시각적 이미지(visual image)'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대 도시들은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하는 다양한 정보와 시각적 이미지들로 채워지게 되고, 그러한 이미지들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순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가 미디어와 이미지들로 채워진다는 것은 도시공간 자체가 점차적으로 시각적으로 구성되며, 결국 '시각문화(visual culture)'가 현대 도시의 중요한 문화적 특징들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미디어와 이미지들을 통해 지리적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 걸쳐 거대한 커피 판매망을 갖고 있는 스타벅스(Starbucks)의 경우, 커피의 지리적 정보가 상품의 이미지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에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커피와 관련된 지리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는 스타벅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커피의 대중 지리학’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림 1 참고).

헐리우드 영화의 포스터, 다국적 기업의 로고,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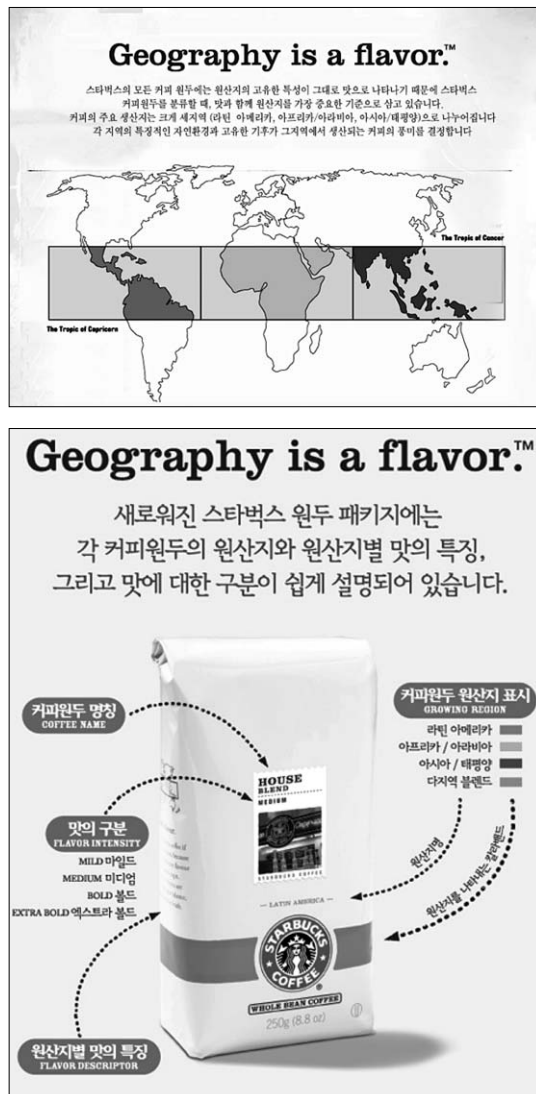


그림 1. Starbucks의 커피지리: 커피 원산지의 분류와 특징

출처: <http://www.istarbucks.co.kr>

고 상품의 로고나 광고사진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들이 도시 공간 곳곳에 나타난다. 기표, 기호, 상징으로서 그러한 이미지들은 다양한 시간적 리듬을 갖고 변하기 때문에 매우 가변적, 우연적, 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감각과 지각은 그와 같은 이미지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사람들이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지가 사람들은 소비하게 된다. 네트워크 도시 공간에서 시각적 이미지들은 기술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자 스크린 위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물리적인 건축 공간과 도시 공간 자체가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들 자체는 비가시적인 경제적 및 문화적 네트워크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시적 도시 경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의 특징들 중의 하나는 그들이 ‘소비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와 이미지의 “스펙터클은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오인하게 하는 기술이며, 그 목표는 소비이다”(권용선, 2007, 101). 이것은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 도시 공간에서 관찰되는 시각적 이미지들의 많은 부분들이 생산기업이나 소비상품의 로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해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더 중요하게, 소비문화와 결합된 시각적 이미지들 자체가 도시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함의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먼저 도시를 채우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들이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나 그들 상품의 로고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네트워크 공간의 한 점에 그 도시가 위치해 있음을, 즉 그 도시가 ‘세계-지방(global-local)’의 관계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시 공간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맥도날드의 로고는 그 곳이 바로 경제적 및 문화적 세계화의 현장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관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적색의 맥도날드 깃발이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에 태극기가 유유히 휘날리고 있는 맥도날드 건물 경관은 압구정동이 다국적 자본에 의한 이식 문화와 국내 문화가 조화/충돌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최병두, 2002, 242).

또 다른 이유로는 외국의 (주로 서양의) 도시/지역 경관이나 이미지가 (육체적 이미지이나 언어적 기호와

함께) 상품의 미디어 광고사진에 등장하면서 도시의 시각적 경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예로, 스타벅스(Starbucks)의 경우, 편의점 판매용 커피의 상품명을 특정 도시명과 결합시키면서 (예를 들어, 밀라노 에스프레소, 시애틀 라떼 식으로), 인터넷, TV, 잡지의 광고사진과 커피 컵에 해당 도시의 경관을 재현시킨다(그림 2 참고). 또한 최근 아파트 광고의 경우, 일종의 문화자본 및 상징자본으로서 거주공간을 차별화시키기 위해, 거주자들이 마치 유럽이나 미국의 고풍스러운 도시에 사는 것처럼 주거상품과 도시/국가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의류상품의 경우에는, 국내외 브랜드 모두의 경우에서, 대체로 서양의 도시 경관뿐만 아니라 서양의 육체적 이미지를 재현하고



그림 2. Starbucks 광고사진: 1971년 스타벅스 1호점인 생긴 시애틀을 배경

출처: <http://www.starbucksanywhere.co.kr>



그림 3. FUBU 광고사진: 2007년 봄 대구시 중앙로 지하철역 광고판에 부착

출처: <http://www.fubu.co.kr>

있는 상품 광고사진들이 도시 공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참고).

이와 같은 ‘타자-되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품의 광고사진들이 도시의 온라인(on-line) 및 오프라인(off-line) 공간 곳곳에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연령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감각과 상상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광고 이미지와 관련하여 Lefebvre(2000, 179)가 설명하듯이, “상상 속의 소비, 상상의 소비-광고문안들-와 실제의 소비는 그것들의 한계를 긋는 경계선이 없다. 굳이 말하자면 끊임없이 침범되는 움직이는 경계선이 있을 뿐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국가, 지역, 도시의 경관 이미지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실천되는 도시에서 시각적 및 지리적 이미지로 재현되면서, ‘물리적’ 도시 경관과 ‘재현적’ 도시 경관이 결합되어 구성된 장소, 즉 ‘실제-가상(actual-virtual)’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가 형성한다(Foucault, 1997). 이와 같은 실제-가상의 맥락에서, 도시 공간에서 재현되는 시각적 이미지가 갖는 함의를, 이미지에 대한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갖고 있는, 몇몇 관련된 포스트모더니즘 및 기호학의 시각들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다.

2. 시각적 이미지 읽기

먼저, 도시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재현된 경관 이미지는, “사진과 영화 이미지는 그것들을 이루는 사물들을 한갓 재현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현시한다”는 ‘현시 테제(presentation thesis)’(Currie, 1995, 389)의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의 대표적 사상가인 Deleuze는 ‘영화’에 관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화의 사진적 이미지가 현재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속에서 있는 것은 이미지가 재현하는 것이다”(Currie, 1995, 283에서 재인용). 즉, 이것은 S라는 도시의 사진이 M이라는 도시의 공간에 있다면, 도시 M에 도시 S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체가 가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상이 실제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실제와 가상 간에는 경계는 무의미하다. Deleuze (1988)에 따르면, ‘실재(real)’는 ‘실제(actual)’와 ‘가

상(virtual)의 결합된 형태이며, '실제' 속에 잠재된 '가상'이 펼쳐질 때 보다 새로운 형태의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 즉 실제와 가상 간의 지속적이고 변증법적인 접혀짐(folding)과 펼침(unfolding)의 과정을 통해 창조적 진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도시는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으로 구성되며, 그 두 공간들 간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한다.

또한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하고 구분한 Levinas의 '존재자 없는 존재(existing without existents)'로서 이미지에 해당한다. 존재와 존재자 간의 구별을 뜻하는 Heidegger의 '존재론적 차이'를 넘어서서,⁵⁾ Levinas(1978)는 '존재자 없는 존재'를 역설하며, 그것에 대한 경험을 '밤'에 대한 경험에 비유한다. "밤은 순수한 무가 아니라 부재의 현존이다. 밤의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라 어둠이 마치 내용인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 빈 조개 껍질을 귀에 대었을 때 귓전을 울리는 소리와 같다"(강영안, 2005, 91).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지 세계의 성격은 레비나스가 제안하는 '있음'의 개념을 통해 더 상세히 설명될 수 있다. ... 이미지는 사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부재를 드러낸다. 그래서 대상의 부재를 드러내는 이미지는 '있음'의 한 양태로 파악된다. ... 레비나스에게 '있음'은 순수한 현존, 즉 존재자 없는 존재를 가리킨다"(박평중, 2006, 105). 이처럼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 무의미한 '있음', 즉 존재자 없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시각적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가 재현하는 사물은 현장에 부재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비어 있는 소라껍질에서 나는 소리처럼 현장의 사람들의 감각에 영향을 주면서 존재하게 된다. Levinas는 이미지 세계의 이와 같은 이중적 속성을 '이국정서(exotisme)'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데, 이 개념 속에서 지각의 대상은 사진의 경우에서처럼 현실세계의 사물이 아니라 사물의 이미지이며, 그 이미지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 밖의 낯선 이국적인 세계라는 것이다. Levinas(1978, 84)는 "그림, 조각상, 책은 '우리' 세계의 대상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로지르며 재현된 사물들은 우리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것은 ... 이미지 세계가 세계라는 자격으로 자신에게 고유한 하나의 현실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박평중, 2006, 104-5). 존재자 없는 존재로서 이

미지가 재현하는 상황이나 사건과 간접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이국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도시 공간에 재현된 시각적 이미지의 경관이 갖는 의미와 영향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기호의 정치경제학'에서 Baudrillard(1981)가 제시한, 즉 '교환가치(use value) / 사용가치(exchange value) = 기표(signifier) / 기의(signified)'라는 은유적 공식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우위에 있듯이, 현대(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기호의 '기의(시니피에)'는 '기표(시니피앙)'에 의해 압도당한다. 결국, 남은 것은 기호나 이미지라는 기표, 즉 '모조품(simulacra)'만이 우리의 일상적 생활세계를 덮어 버린다(Baudrillard, 1994). Lefebvre(2000, 207)가 지적하듯이, 도시의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광고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한다. 광고는 한 물건에 이데올로기적 주제를 연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건에 현실과 상상이라는 이중의 존재를 부여한다. 광고는 이데올로기의 용어들을 거기에 다시 연결하고, 신화학을 건너뛰어 그 너머에서 이미 회수되고, 사용된 시니피앙들을 시니피에에 연결시킨다". 그 결과, "도시를 경험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도시의 이미지들은 이질적인 단편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현대에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일 새로운 모습이 창출되고 있다"(정하인, 2006, 267). 포스트모던 건축가인 Koolhaas는 중심성과 정체성이 사라진 이런 도시를 '제네릭 시티(generic city)'라고 불렀으며(정하인, 2006, 267), 어떤이는 그러한 경관을 장소성 혹은 장소감의 상실이라는 의미에서 '지리의 종말(end of geography)'로 설명하고 있다(Smith, 1997).

이것을 Derrida가 말한 '차연(differance = 차이+연기)'의 개념을 통해 보면, 기의가 기표에서 분리되어 그 아래로 미끄러져 흩어져 버리고, 결국 남은 것은 견고하게 연결되었던 하나의 기의에서 자유롭게 떨어져 나와, 가변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들과 결합되는 기표의 '텍스트(text)' 뿐이다. '지시대상', '기표' 그리고 '기의'의 삼각 관계에서, Saussure가 지시대상을 끊어 버리고, 기표와 기의 간의 관계를 필연적이 아닌 자의적인 결합을 통해 느슨하게 만들었다면, Derrida는 차연

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시 기표와 기의를 이어주던 미미한 끈마저 끊어 버린다. 이것은 기표와 기의 사이의 끊임없는 (재)분리와 (재)결합의 연쇄적 과정의 사슬을 통해 기호와 이미지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설명하는 Barthes의 '신화론(mythologies)'과 많은 점을 공유한다. Derrida(1973, 130)에 따르면, "의미는 언제나 이미 흔적의 '운동'에, 다시 말해 '기표작용'의 질서에 말려들어가 있다. 그것은 언제나 이미 자기 밖으로 나와서 체험의 '표현적 층' 속에 들어가 있다. 흔적은 살아 있는 현재가 자기의 바깥과 맺고 있는 내밀한 관계(이기에) ... 의미의 시간화가 벌이는 놀이는 처음부터 '공간화'이다".⁶⁾ 여기서 "흔적은 오히려 사라짐을 통해 주어지는 현존, 즉 부재의 현존이다. 그런 점에서 흔적은 스스로 취소되는 현존, 자신의 현존을 부인하는 현존이다"(박평중, 2006, 222). 덧붙여, Derrida는 의미의 시간화(연기)가 곧 공간화(차이)임을 밝힘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구별을 무너뜨리는데, 이 점은 기억과 같은 순수한 시간(가상)과 시계와 같이 공간화된 시간(실제)을 구별한 Deleuze의 관점과 비교된다.⁷⁾ 결국, 우리의 생활공간은 원본이 사라져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림자의 존재와 같은 혹은 원음은 사라져도 계속해서 울리는 메아리의 존재와 같은 '흔적(trace)'으로 구성된 곳이다.

Deleuze의 '가상', Levinas의 '존재자 없는 존재', Baudrillard의 '모조품' 그리고 Derrida의 '흔적'으로서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미디어와 이미지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사물과 세상에 대해 지각하고, 느낌을 갖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리적 공간이나 미디어 공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서양의 도시/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상품의 광고사진에서, 그 재현된 서양의 도시/지역 경관은 상품의 이미지 혹은 상품소비의 욕망과 결합된다. 즉, 소비상품을 서양의 도시/지역 경관과 함께 재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서양의 도시/지역에 대한 동경이 소비상품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상품에 대한 욕망이 서양의 도시/지역에 대한 욕망과 결합한다. 이와 같은 순환적이고 변증법적 관계에서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물(상품과 도시 모두)에 대한 '이미지'이다. 이것은 미디어와 이미지를 통한 '재현의 정치(politics of representation)'

이며, 이 과정에서 도시/지역에 대한 재현적, 가상적 혹은 상상적 지리가 생산된다.

IV. 일차원적 인간의 조건으로서 비판적 지리

1. 일차원적 인간과 미디어

이처럼 경제적 및 문화적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된 도시 공간에서는 기술주의와 소비주의에 바탕을 둔 '상상적 지리(imaginative geography)'가 다양한 미디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지리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에 대응하는 '비판적 지리(critical geography)'라 할 수 있겠다. 즉 경제적 및 문화적 네트워크와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현대 도시 공간을 학습자들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비판 사회이론가인 Marcuse가 지적하고 있는 '일차원적 인간(one-dimensional man)', 즉 선진 산업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에 의한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를 받으며, 그 결과 '비판적 이성' 기능을 상실한 인간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및 교육학적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비록 Marcuse의 '일차원적 사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국가의 관료적 권력과 결합된 포디즘의 경제체제 하의 서양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시사점은 정보사회라 불리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유효하다.

Marcuse는 인간의 '욕구'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허위'의 욕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진실'의 욕망이다. 여기서 전자는 현실에 '만족' 혹은 '긍정'하려는 욕구이며, 후자는 현실을 '비판' 혹은 '부정'하려는 욕구이다. 전자의 욕구만을 갖고 있는 인간을 '일차원적 인간'으로, 후자의 욕구를 갖고 있는 인간을 '이차원적 인간'으로 부른다. 관료적 통제, 기술적 진보 그리고 일상적 반복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성의 기능은 마비되고, 상품에 대한 욕망과 소비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 이와 같은 인간을 일차원적 인간으로 부를 수 있다. Lefebvre(2000)가 '소비조작의 관료사회'로 묘사한 Marcuse의 '일차원적 사회'에서의

‘일차원적 인간’은 Heidegger가 현대 도시에서 진정한(authentic) 관계와 실존적(existential) 자각을 상실한 인간으로서 묘사한 대중(mob) 혹은 군중(crowd)의 개념과 유사하다. 현대 사회 및 도시에서 Marcuse의 일차원적 인간 혹은 Heidegger의 군중을 만들어내는 요인들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와 같은 기술(technology)이다. 특히, 미디어는 ‘담론의 정치’ 혹은 ‘재현의 정치’를 통해 그와 같은 일차원적 인간/사회를 생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rcuse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만일 노동자와 그의 보스가 동일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즐기고 동일한 행락지로 나간다면, …… 그 경우에 이러한 동일화는 계급의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기성 사회의 유지에 기여하는 욕구와 만족이 이 사회의 하층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 보도 및 오락의 도구로서의 매스 미디어와 조작 및 교화의 수단으로서의 그것은 실제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Marcuse, 1964, 27-28)

“일차원적 사유는 정치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 그리고 대량 정보를 조달하는 그들 어용 상인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된다. 그 언설의 세계는 자기 증명적인 가설 - 끊임 없이 독점적으로 되풀이됨으로써 최면적인 정의 또는 명령이 되는 가설 - 로 가득 차 있다”(Marcuse, 1964, 34).

미디어는 이처럼 한편으로는 ‘일차원적 인간’으로서 현대 사회의 대중들로 하여금 세계와 사물에 대해 특정한 방향에서 ‘보는 방식(way of seeing)’ (Berger, 1972)을 갖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소감 상실(no sense of place)’ (Meyrowitz, 1995)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지적 장소에서의 문화적 통합을 벗어나 세계적 공간에서의 문화적 통합, 즉 ‘문화적 세계화’를 촉진한다. 상반되게 보이는 이 두 측면들은, Habermas 식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및 경제적’ 체제에 의해 식민화된 생활세계에서 사람들이 왜곡된 (지리적) 상상력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Foucault(1980)가 지적하고 있는 지식과 권력을 통한 육체의 훈육과 통제는 감옥, 병원, 학교와 같은 닫혀진 물리적 공간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러한 통제는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열려있는 네트워크 공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Deleuze, 1997). 미디어와 이미지에 의한 담론과 재현의 정치는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Said(1978)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일종의 ‘상상적 지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상상적 지리는 일차원적 인간/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 미디어와 상상적 지리

미디어를 통한 상상적 지리의 생산은 여러 문화 및 미디어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재현에 대한 ‘구성주의적’(constructionist) 관점이 중요하다.⁸⁾ 이것은 미디어를 통한 “재현은 늘 ‘현실의 구성’을 수반한다”(Chandler, 2002, 125)는 것을, 다른 말로 그러한 재현은 ‘보는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담론적 의미화(encoding)를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미디어는 세상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의도적으로 세상을 생산한다는 점과, 그러한 맥락에서 도시 공간 내에서 기술주의와 소비주의와 결합된 상품의 광고사진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들이 우리들의 (지리적) 상상력의 범위를 제한, 조정 그리고 왜곡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상적 지리는 광고의 시각적 이미지가 유발하는 ‘사회적 상상’ (Lefebvre, 2000)의 결과로서 출현하는데, 이 점은, 비록 기술 비판주의적 시각이 상당히 짙지만, Marcuse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보다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

“상상력의 로맨틱한 공간을 축소하고 또는 소거함으로써 사회는 상상력의 새로운 지반에서 자기를 검증하도록 강요했다. …… 상상력은 물질적 생산과 물질적 요구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면, 필연성의 영역에서 무가치하며 단지 공상적인 논리와 공상적 진리에만 관련된 단순한 놀이가 된다. 기술의 진보가 이 분리를 폐기할 때, 이미지는 그 자신의 논리, 그 자신의 진리를 부여한다. 기술의 진보는 정신의 자유로운 능력을 축소한다”(Marcuse, 1964, 287).

이와 같은 의미에서, 기술주의와 소비주의에 바탕을 둔 일차원적 사회에서 미디어와 같은 기술은 일차원적 인간의 상상력의 범위를 제한하고 조정하며, 그에 따라 왜곡된 지리적 경험, 지식 그리고 상상을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서양의 도시/지역의 이미지가 유명 상품의 이미지

와 결합되어 전달될 때, 유럽이나 북미의 이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재현에서 배제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이미지, 이들 모두가 왜곡되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디어를 통한 일차원적 인간의 조건으로서 상상적 지리의 생산을 의미한다. 즉 상품에 대한 소비와 그 소비를 통한 자아 실현을 욕망하는 일차원적 인간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차별화된 상품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선별적인 도시/지역의 이미지가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상상적 지리가 생산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세계화 및 정보화의 흐름과 함께 형성된 경제-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특정한 장소는 세계-지방 네트워크 상에 놓이게 되며, 결국 그 장소에는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국적인 경관들이 출현하게 된다. 본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의 순수하고 진정한 경관이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양을 포함한 외국 도시/지역의 이미지들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와 같은 순진한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타주의적(혹은 국수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나아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장소나 그 경관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오랜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으며, 처음부터 순수한 것들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오진 않았다. 차라리 ‘장소와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Relph(1976, 82)가 설명하듯이, “개인이나 문화에 의해 정의되는 장소들은 그 위치, 활동, 건물들이 의미를 가지고 또 잃어버리면서 성장 변형하고 쇠퇴하게 된다. 현재의 장소는 이전의 장소에서 성장하거나 과거의 장소를 대체하면서 그런 의미들의 진정이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의 지리적 경관을 재현하고 있는 상업적 광고사진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와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적 생활세계로 들어와서 장소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나 ‘장소감’을 파괴한다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그와 같은 소비주의, 상업주의 그리고 기술주의에 기반한 미디어와 이미지가 자아(self)와 타자(other)에 대한 문화적 및 지리적 상상력을 왜곡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일차원적 인간의 조건으로서 가공된 혹은 상상의 지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공적 지리’와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경험되는 ‘사적 지리’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지리 교과내용을 조직한다고 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학습자들의 사적 지리의 상당 부분이 학교 교과서에서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중립적, 자연적 대상이라기 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해독(decoding)되어야 할 이념적, 신화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종류의 상상적 지리가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도 만들어 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리학 연구자나 학교 교사 모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심코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 학교 지리 교과서에서는 세계화 및 정보화 담론과 관련하여 정보기술에 의한 만들어진 ‘정보경관’이나 ‘정보도시’가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통해 묘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이 주어진 공간 규모 내에서 시공간 압축의 과정을 고르게 진행시키는 것처럼, 또는 정보도시에서 삶이 현재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반면, 정보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되어 있다. 교과서에서 재현된 그러한 정보경관은 Toffler나 Bell의 책들에서 묘사된 ‘기술-유토피아(techno-utopia)’에 대한 ‘재현의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몇몇 지리 교과서에는 미래 사회나 도시의 모습을 그리기 위하여 헐리우드 SF 영화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그림 4 참고), 그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할 수는 있으나, 헐리우드 미디어에 의해 재현된 세계, 이상, 가치 등을 무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형성할 수 있다. 덧붙여, 어느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세계화 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예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포스터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지문을 제시한다(그림 5 참고).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국의 교육 기관, 문화 매체, 박물관을 통해 끊임없이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일부 선진국의 대규모 미디어 그룹은 이미 문화, 종교, 역사, 인종 간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있다”(C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지리).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인종적 편견이나 성적(gender) 차별 등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 교육학자 Giroux(1999) 등이 지적한 사실이며,



그림 4. SF 영화 제5원소의 포스터: 포스터의 일부분이 K 출판사 중학교 사회3 교과서에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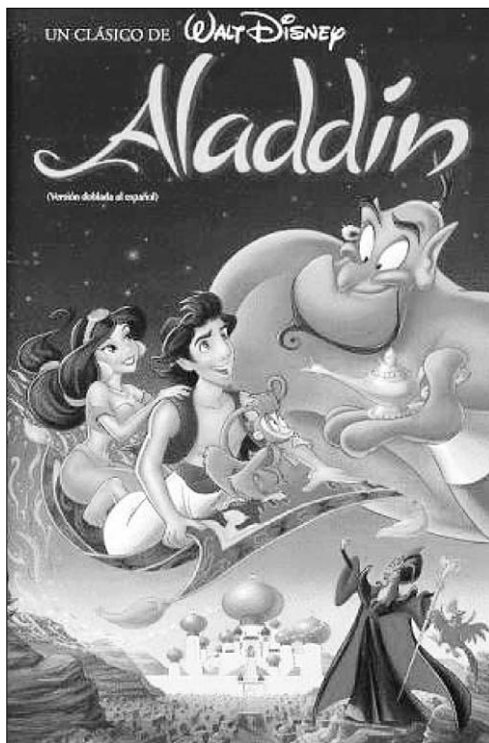


그림 5.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포스터: 포스터의 일부분이 C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 수록

세계 공간에서 문화적 차이성과 상대성의 순수한 중요성을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대규모 미디어 자본의 관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미디어 자본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계 미디어 공간에서 국지적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계-지방’ 전략을 사용할 때 그러하다(Morley and Robins, 1995).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에서 재현된 일종의 상상적 지리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정보화 및 세계화의 유토피아적인 상상적 지리는 이미 TV나 여타 미디어를 통해 담론의 정치 및 재현의 정치와 함께 묘사되어 왔다. 이것은 정보경관의 모습을 ‘기술-디스토피아(techno-dystopia)’로만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 또한 ‘기술-결정론(techno-determinism)’의 또 다른 측면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보경관을 마치 건축물의 설계도처럼 이미 정해진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과 정보, 그리고 정보사회라는 관념이 특정 방식으로 말하여지고 상식화되며 정전화된 것이 바로 정보사회에 대한 재현의 권력인 것이다”(박해광, 2004, 253). 우리는 여기서 Wittgenstein (1984, 3e)의 유명한 문구를 떠올릴 수가 있다: “우리가 세상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이 계속 간다면, 그것이 도달할 종착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 그것의 경로가 직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향을 변화시키는 곡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사적 지리의 바탕이 되는 일상적 생활세계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not a straight line but a curve)’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교 안팎에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지리의 대부분은 직선으로 재현되어 있다. Marcuse의 일차원적 인간에서 이차원적 인간으로의 회복이 긍정적 혹은 상상적 지리에서 부정적 혹은 비판적 지리로의 전환과 더불어 이루어 진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학교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라는 미디어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V. 결 론: 상상적 지리교육에서 비판적 지리교육으로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공적 지리’에 바탕을 둔 지리

교육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학습자들의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경험되는 '사적 지리'에 근거한 (지역)지리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적 지리와 공적 지리는 분리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지리를 통해 공적 지리를 이해하고, 공적 지리를 통해 사적 지리를 파악하는 순환적 관계에 있다. 더 나아가, 사적 지리에 근거한 지리교육은 학습자에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장소감'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⁹⁾ 하지만, 일상적 생활세계 자체가 점차적으로 미디어 네트워크와 그것에 의해 전달되고 순환되는 시각적 이미지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사적 지리는 더 이상 이념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순수한 경험이 될 수 없다.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경험되는 사적 지리는 점차적으로 기술주의, 상업주의 그리고 소비주의와 결합된 미디어와 이미지들을 통해 학습자들의 실존적 삶의 터에서 점차적으로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학습자들은 비판적 사고 기능을 잃어 버리고 단지 상품의 소비를 통해만 자아를 실현하는 '일차원적 인간'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탈맥락화된 상상적 지리의 생산은 다양한 상업적 미디어가 작동하고 있는 학교 밖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학교 안 영역에서도 교과서라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 및 정보화 담론과 관련하여 교과서가 도리어 일종의 상상적 지리를 재현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상적 지리를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바라 볼 틈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점은 학교 안팎에서 학습자들의 지리적 경험이 '이중적으로 탈맥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사회라는 담론 속에서 학교 안팎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지식기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에 적합한 '창의적(creative)' 사고와 인간의 육성이다. 그러한 담론에서 창의적 인간은 신경제 사회에서 더 많은 부를 끊임없이 생산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인간상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와 같은 인간상이 부정될 수는 없지만, 정보사회 담론과 정책에서 기술주의와 소비주의에 의한 일차원적 인간의 출현 가능성과 그 대안으로서 '비판적(critical)' 사고와 인간에 대한 강조는 찾아 보기는 힘들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현실상황에서, 본 연구는 먼

저 오늘날 도시에서 일상적 생활세계가 어떻게 상업주의적 미디어 네트워크와 소비주의적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상상적 지리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사적 지리에 근거한 지리교육의 방향과 역할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존의 한계와 현실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사적 지리 기반 지리교육에서 사적 지리는 말 그대로 사적인 영역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구자들에 의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통해 이룩한 학문적 지리, 즉 공적 지리에 근거한 한 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지역 혹은 주변지역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사적 지리를 공적 지리에 대한 이해의 도구로 전략시키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현실 세계의 텍스트를 교과서의 텍스트를 통해 바라보고 해석하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오늘날 미디어 네트워크와 시각적 이미지로 채워지고 있는 생활세계는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나 이론에서처럼 중립적이거나 순수한 차원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즐겨 찾는 소비 공간에서 그 소비 공간이 왜 여기 입지하고 있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들 대부분은 그 소비 공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과 그 이미지에 관심을 갖는다. 도시 공간에서 소비 공간이 어디에 왜 위치하는가라는 식으로 기존의 교과서에서 강조해 온 입지론적 시각을 통해 일상적 생활 공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학습자에게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문화 네트워크 및 세계-지방 네트워크 망 속에 위치한 소비 공간에서 상품의 이미지를 통해 왜곡될 수 있는 자아와 타자에 대한 상상적 지리의 극복이라 할 수 있겠다.

상업적 미디어,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상상적 지리로 채워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지리교육적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차원적 인간/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맥락화되고 왜곡된 지리적 상상력이 아니라 맥락화되고 비판적인 지리적 상상력을 통해 학습자들이 그들의 사적 지리, 즉 일상적 생활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지리교육의 의미와 위치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안목과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 지리교

육을 통해 학교 밖에서 기술주의와 소비주의와 결합되어 형성된 ‘상상적’ 지리를 ‘비판적’ 지리로, 혹은 Marcuse의 용어를 사용하면 ‘긍정적’ 지리를 ‘부정적’ 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흔히 정보사회라 불리는 오늘날, 지리적 지식과 경험은 굳이 학교 교과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미디어가 제공하는 지식과 비교할 때 교과서가 제공하는 지식의 규모와 영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습자들은 그들의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여러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지리적 지식, 정보 그리고 경험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때문에 학교 지리교육의 의미가 줄어들 수는 없다. 도리어 오늘날 기술주의와 소비주의의 이데올로기 망에 위치하는 일상적 생활세계의 ‘사적 지리’를 ‘상상적 지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판적 지리’를 통해서 바라 볼 수 있는 중심적 위치에 학교 지리교육이 위치해야 한다.

주

- 1) 본 논문에서 외국 원서의 한글 번역서를 인용할 경우, 저자와 출판년도는 원서를 기준으로 쪽번호는 번역서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 2)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사회(지리) 영남지방 단원 수업에서 대구 주변지역의 농업작물이 과거 사과에서 현재 포도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현재 포도밭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대구시 번두리 중학교에서 가르칠 경우,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내용과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점은 비록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의 현상이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관심과 의미는 그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증명한다.
- 3) 정치경제학적 조절/통치 이론과 더불어, 제도/진화경제학 담론에서도 지리적 규모나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나 지역의 경제적 및 기술적 혁신은 그 곳의 제도적 혹은 문화적 환경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지식의 측면에서 볼 때, ‘형식지(codified knowledge)’라 일컬어지는 공식적 정보의 이동은 경제적 거래와 기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 공간에서 용이한 반면, 지역 및 기술 혁신에 중요한 ‘암묵지(tacit knowledge)’라는 개인적, 경험적, 비공식적 지식은 국지적 범위와 영역 내에서 장소-특수적인 제도적, 문화적, 관습적 환경을 통해서 생산, 학습,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Morgan, 2004; Storper and Venables, 2004; Gertler, 2003).
- 4) Howitt(2002)에 따르면, 지리적 규모(scale)의 은유적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크기로서 규모(scale as size)’는 영토 면적의 수치적 크기나, 공간적 재현과 분석을 위한 지도의 축척의 뜻으로 사용되며, 규모의 계층적 질서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단계로서 규모(scale as level)’는 지방, (지역), 국가, (지역), 세계 등과 같은 단계적, 포섭적, 계층적인 피라미드 질서를 나타내는 층(layer)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크기’로서의 규모와 ‘단계’로서의 규모의 차이는 국가 수준에서 잘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러시아 연방은 비록 ‘크기로서 규모’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나, ‘단계로서 규모’에서는 같다. 반면, 싱가포르와 시카고는 ‘크기로서 규모’에서는 비슷할 수 있으나, ‘단계로서 규모’에서는 전자는 국가적 수준이고 후자는 국지적 수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로서 규모(scale as relation)’는 세방화(glocalization)의 경우처럼 상이한 규모의 공간적 단위들 간의 ‘규모-횡단적 관계(cross-scale relations)’를 설명한다. 앞의 두 가지 개념들이 모두 규모를 계층적 측면에서 보는 반면, 이 관점은 규모들 간의 위계적 질서를 거부하면서, 큰 규모(예를 들어 세계나 국가)의 수준이 작은 규모(예를 들어 지방이나 도시)의 수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5) Heidegger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해 Levinas(1987, 39)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은 ‘존재와 시간’ 가운데서 가장 심오한 사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이데거에게는 구별이 있을 뿐 분리가 없다.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 속에 붙잡혀 있다”. 다시 말해, “‘존재자 없는 존재’가 Heidegger에게 불가능한 까닭은 존재는 오직 존재자(현존재)의 존재 이해를 통하여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Heidegger에게) 존재는 항상 존재자의 존재이며 존재자는 존재 없이 실존할 수 없다. … 그러므로 Levinas는 ‘존재자 없는 존재’를 Heidegger는 생각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강영안, 2005, 89).
- 6) “데리다는 자기 의식의 순수 시간성의 차원에서 자기 촉발을 통해 확보하는 소위 절대적 내면성에 외부로 통하는 공간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인다. 순수 내면성이란, 자기 목소리를 듣는 주체가 ‘같은 순간에’ 이 목소리에 의해 표현되는 자신의 생각을 체험한다는 자기 의식의 순간성에 부여될 수 있는 속성이다. 그러나, … 현재의 순간이 지금과 비지금의 차이에 의해 산출되는 사이라면, 자기 음성을 듣는 주체가 자기 생각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지금과 비지금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거쳐야만, 비지금이라는 바깥으로 나가야만, 세계로 외출해야만 한다. 시간이란 파지에 의한 표시적 우회가 만드는 사이 두기, 즉 공간화됨을 함의함으로써 데리다는 시간과 공간의 구별 및 안과 밖의 구별을 무너뜨린다”(김상록, 2006, 223-224).
- 7) Baudrillard, Deleuze 그리고 Derrida의 관점들을 잠시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술 창작에서 기본원리로서 자연이나 세계에 대한 모방 혹은 재현을 뜻하는 ‘미메시스(mimesis)’에 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비교하는 다음의 인용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술로의 변환을 통해 주어진 세계는 현실세계와 존재론적인 거리

를 두는 재현으로서의 세계이다. 우리는 미메시스의 개념 위에 세워진 고전적인 이론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세계, 예술의 세계에 위계를 부여하면서 모방이 갖는 필연적인 거리를 강조하는데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의 긍정적인 힘을 받아들여 그것의 창조적 가치를 부각시킨다. 예술과 이미지에 대한 두 상반된 태도는 모든 재현예술의 가치판단을 둘러싼 오랜 전통을 지배해 왔다”(박평중, 2006, 151). 여기서 Baudrillard의 관점이 플라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면, Deleuze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재를 모방하던 가상이 도리어 점차 실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Baudrillard의 관점에 따르면, 과거 순수했던 실제 공간은 오늘날 가상공간에 의해 오염되고 사라지고 있는 반면, ‘실재(real)’는 ‘실제(actual)’와 ‘가상(virtual)’으로 구성되었다는 Deleuze의 관점에 따르면, 가상공간은 실제공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보다 완전한 형태의 실제공간을 창조적으로 진화시킨다. 비슷하게, Bergson의 진화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 Deleuze의 ‘가상 이미지(virtual image)’의 개념이 부재한 것에서 현존하는 것으로 혹은 먼 것에서 가까운 것으로의 변화를 뜻하는 반면, Husserl의 현상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Derrida의 ‘흔적(trace)’의 개념은 그 역 방향으로의 이동을 뜻한다(Lawler, 2000, 61).

8) Hall(1997, 15)은 ‘재현(representation)’의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언어는 사물, 사람, 사건의 세계에서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의미를 단순히 반영한다는 ‘반영적(reflective)’ 재현. 둘째, 언어는 화자, 작가, 화가 말하려고 하는 것, 즉 개인적으로 의도된 의미만을 표현한다는 ‘의도적(intentional)’ 재현. 마지막으로, 의미는 언어 속에서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적(constructionist)’ 재현인데, 이 관점은 다시 Saussure의 영향을 받은 ‘기호학적(semiotic)’ 접근과 Foucault의 영향을 받은 ‘담론적(discursive)’ 접근이 있다. 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접근인 구성주의적 접근은 “재현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공간 속에 어떤 방식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가”(박해광, 2004, 244)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본 논문은 재현에 대한 세 번째 관점에서, 3절에서는 기호학적 접근에, 4절에서는 담론적 접근에 초점을 둔다.

9) 최근 연구에서 조철기(2007)는 고등학교 장소관련 지리교과 내용분석을 통해, 삶의 세계에 대한 비판적 문해력(critical literacy)의 향상을 위해서는 인간주의에서 급진주의적 장소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헌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권용선, 2007, “미디어와 스펙터클”, 이진경 편,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87-113.

권정화, 1997, “지역지리 교육의 내용 구성과 학습 이론의 조응”, 대한지리학회지, 32(4), 511-520.

김상록, 2006, “철학적 도구의 가능성”, 김상록 역, 목소리와 현상, 인간사랑, 163-236.

김정아 · 남상준, 2005, “장소 중심 지리교육내용 구성 원리의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85-96.

남호엽, 2005, “지리교육에서 장소학습의 의의와 접근 논리”, 사회과 교육, 44(3), 195-210.

류재명, 2002, “학생의 일상생활경험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리수업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3), 1-16.

박승규 · 김일기, 2001, “일상생활에 근거한 지리교육의 재개념화”, 대한지리학회지, 36(1), 1-14.

박평중, 2006, 흔적의 미학: 기호 · 이미지론과 사진의 기초 개념, 미술문화.

박해광, 2004, “정보사회와 재현의 정치”, 동향과 전망, 60, 242-281.

송언근 · 김재일, 2002, “초등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인지 특성과 세계지리 교육과정 구성의 전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3), 364-379.

심승희, 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토마스 하디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3(1), 67-84.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지리학적 연구주제의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이영민, 2003, “지역신문의 지방화 전략과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 연구: 인천 연수신문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31-44.

이은숙, 1992,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4, 147-166.

이정화, 2005, “수용자 문화가 장소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97-123.

장의선 · 김일기 · 이민부 · 박승규, 2002, “지리과 생활중심 교수-학습의 의미와 실제”, 대한지리학회지, 37(3), 247-261.

- 정인하, 2006, 현대 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 조성옥, 2002, “지리교육에서 주변지역학습의 교육적 의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2), 25-39.
- 조철기, 2007, “인간주의 장소정체성 교육의 한계와 급진적 전환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5(1), 51-64.
-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 Amin, A. and Graham, S., 1999, Cities of connection and disconnection, in Allen, J., Massy, D. and Pryke, M. (eds), *Unsettling Cities: Movement/ Settlement*, Routledge, London, 7-47.
- Amin, A. and Thrift, N., 2002, *Cities: Reimagining the Urban*, Polity, Cambridge.
- Appadurai, A., 1990,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in Featherstone, M.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Sage, London, 295-310.
- Augé, M., 1995,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Verso, London.
- Barber, B., 1996, *Jihad vs. McWorld: How Globalism and Tribalism Are Reshaping the World*, Ballantine Books, New York.
- Baudrillard, J., 1981, *For a 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ign*, Telos, St. Louis, MO.
- Baudrillard, J., 1994, *Simulacra and Simulatio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Mich.
- Berger, J., 1972, *Ways of Seeing*,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London.
- Brenner, N., 2000, The urban question as a scale question: reflections on Henri Lefebvre, urban theory and the politics of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4(2), 361-378.
- Chandler, D., 2002, *Semiotics: The Basics*, Routledge, London (강인규 역, 2006, 미디어 기호학, 소명출판).
- Currie, G., 1995, *Image and Mind: Film, Philosophy, and Cognitive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김숙 역, 2007, 이미지와 마음: 영화, 철학 그리고 인지과학, 한울).
- Deleuze, G., 1988, *Bergsonism*, Zone Books, New York.
- Deleuze, G., 1997,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in Leach, N. (ed.),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 Routledge, London, 309-313.
- Derrida, J., 1973, *Speech and Phenomenon and Other Essays on Husserl's Theory of Sign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IL (김상록 역, 2006, 목소리와 현상, 인간사랑).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Pantheon Books, New York.
- Foucault, M., 1997, Of other spaces: utopians and heterotopias, in Leach, N. (ed.),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 Routledge, London, 350-356.
- Gertler, M. S., 2003, Tacit knowledge and the economic geography of context, or The undefinable tacitness of being (there),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3(1), 75-99.
- Giroux, H. A., 1999, *The Mouse that Roared: Disney and the End of Innocenc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Lanham, MD.
- Graham, S. and Marvin, S., 2001, *Splintering Urbanism: Networked Infrastructures, Technological Mobilities and the Urban Condition*, Routledge, London.
- Hall, S., 1997, The work of representation, in Hall, S. (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Sage, London, 13-74.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Oxford.
- Howitt, R., 1998, Scale as relation: musical metaphors of geographical scale, *Area*, 30(1), 47-58.
- Howitt, R., 2002, Scale and the other: Levinas and geography, *Geoforum*, 33(3), 299-313.
- Jessop, B., 2000, The crisis of the national spatio-

- temporal fix and the tendential ecological dominance of globalizing capit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4(2), 323-360.
- Jonas, A. E. G., 1994, The scale politics of spati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2(3), 257-264.
- Lawlor, L., 2000, A nearly total affinity: the Deleuzian virtual image versus the Derridean trace, *Angelaki: Journal of the Theoretical Humanities*, 5(2), 59-71.
- Lefebvre, H., 1991,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Oxford.
- Lefebvre, H., 2000, *Everyday Life in the Modern World*, Continuum, London (박정자 역,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 Levinas, E., 1978, *Existence and Existents*, Martinus Nijhoff, Hague (서동욱 역, 2003,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 Levinas, E., 1987, *Time and the Other*, Duquesne University Press, Pittsburgh, PA (강영안 역, 1996,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 Marcuse, H., 1964, *One-Dimensional Man: Studies in the Ideology of Advanced Industrial Society*, Beacon Press, Boston, MA (박병진 역, 1993, 일차원적 인간: 선진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마음사).
- Marston, S., 2000,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219-242.
- Marston, S., 2004, A long way from home: domesticating the social production of scale, in Sheppard, E. and McMaster, R. B. (eds), *Scale and Geographic Inquiry: Nature, Society and Method*, Blackwell, Oxford, 170-191.
- MacLeod, G. and Goodwin, M., 1999, Space, scale and state strategy: rethinking urban and regional governan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4), 503-527.
- Meyrowitz, J., 1985, *No Sense of Place: The impact of Electronic Media on Social Behavior*,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Morgan, J., 2001, Popular culture and geography education,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0(3), 284-297.
- Morgan, K., 2004, The exaggerated death of geography: learning, proximity and territorial innovation system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4(1), 3-21.
- Paasi, A., 2004, Place and region: looking through the prism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4), 536-546.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공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Ritzer, G., 1996,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nging Character of Contemporary Social Life*, Pine Forge Press, Thousand Oaks, CA.
- Morley, D. and Robins, K., 1995, *Spaces of Identity: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daries*, Routledge, London.
- Said, E., 1978, *Orientalism*, Pantheon Books, New York.
- Smith, N., 1992, Geography, difference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Doherty, J., Graham, E. and Malek, M. (eds),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Macmillan, London, 57-79.
- Smith, N., 2001, Rescaling politics: geography, globalism, and the new urbanism, in Minca, C. (ed.), *Postmodern Geography: Theory and Praxis*, Blackwell, Oxford, 147-165.
- Smith, R. G., 1997, The end of geography and radical politics in Baudrillard's philosoph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5, 305-320.
- Storper, M. and Venables, A.J., 2004, Buzz: face-to-face contact and the urban econom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4(4), 351-370.
- Swyngedouw, E., 1992, The Mammon quest. 'Glocalisation', interspatial competition and

the monetary order: the construction of new scales, in Dunford, M. and Kafkalas, G. (eds),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Belhaven Press, London, 39-67.
Wittgenstein, L., 1984, *Culture and Valu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최초투고일 : 2007. 08. 06.

최종접수일 : 2007. 09. 04.

교신 : 이희상,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thisang@hanmail.net)

Correspondence : Heesang Lee, thisang@hanmail.net